

은행권 “상생금융 뭘 내놓나” 속알아...관치 금융 논란도

이자이익 기부·출연 논의 가능성...5대회장 ‘사전조율’ 회의 취소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으로 할 일을 금융 사기업에 떠넘기는 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금융권을 겨냥한 시중은행 압박이 거세지면서 금융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단의 회동이 임박한 가운데, 어떤 상생 금융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할지 당국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재정으로 할 일을 금융 사기업에 떠넘긴다”, “씩 내키지 않는 방산 수출 대출에도 동원한다” 등의 ‘관치 금융’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개발대응·공동대응·상생방안 놓고 5대 금융그룹 갈팡질팡=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상생 금융 방안과 관련해 각 금융지주 회장에게 “개발 금융그룹별로 대응하기보다는, 금융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새로운 내용을 마련해 은행권 공동으로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5대 금융지주 회장은 당초 13일 김 회

장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 16일 당국과의 회동에 앞서 적절한 상생 금융 아이디어를 미리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사전에 지원 규모 등을 조율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모임을 불과 이틀 앞두고 돌연 해당 일정이 잠정적으로 취소됐다.

현재 정부의 압박 속에 무엇을 더 내놔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금융권의 처지를 그대로 드러낸 해프닝이다.

◇하나·신한 1천억 지원안에도...“그런 정도로는 안되지 않겠나”=올해 초에 이어 다시 이달 초 ‘(은행의) 종노릇’ 등의 표현과 함께 정부의 은행 때리가 시작되자, 앞서 3일 하나은행은 발 빠르게 소상공인·자영업자 30만명에 대한 1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일정 기간 약 11만명이 납부한 이자 가운데 약 665억원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이 핵심

이다.

신한금융그룹도 6일 약 1000억원 규모의 취약금융 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지원 방안을 내놔다.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이자 감면·수수료 면제 등 상생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대상을 늘리는데 610억원, 소상공인·청년 금융 부담 완화 부문에 440억원을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올해 은행권 이자 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이 반도로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해서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 인지에 대해서는, 은행 산업에 계신 분들도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외부채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요 황재세도 그 맥락”이라며 “일단 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이익으로 재단출연·기부 등 아이디어 짜내기=이런 발언들로 미뤄, 금융권에서는 “은행별 1000억원 정도 규모의 이자 감면 등 기존 프로그램

으로는 은행 때리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퍼졌다.

당초 6일 또는 7일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던 KB금융그룹이 발표를 잠정 보류한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우리·NH농협금융그룹도 서둘러 대책을 공개하기보다는 정부 요구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60조원 이자 이익 등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결국 문제의 초점인 이자 이익을 어떤 형태로든 내놔야, 적어도 하나·신한 1000억원보다는 더 내놔야 이 사태가 진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각 금융그룹이 코로나19 이후 벌어들인 이자 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부나 출연 형태로 내놓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갈아타기)해주거나 일부를 탕감해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금융지원 등에 쓰자는 아이디어들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자 감면 등으로 이익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자 이익을 직접적으로 떼어 내놓는 데 대한 여러 논란도 있다.

우선 현재 은행권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돕

기 위해 출연 또는 기부하는 통로가 많은데, 증액을 하면 되지 별개의 재단이나 기금을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은행권은 2012~2025년 청년창업재단(디캡)과 관련해 약 7000억원을 이미 출연했거나 할 예정이고 은행연합회 20여개 회원기관(은행·보통저금·한국주택금융공사)은 새희망썬대출 등 금융지원과는 별개로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1조원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썼다.

아울러 이익 축소로 배당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주주들도 설득해야 하고, 미래 경기·금융 위기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총당금유지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수록,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금융 간섭이 너무 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스스로 대출자선 전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고금리 시대에 부응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연장 또는 유예해주거나 일정 부분 금리를 낮춰주는 등의 연착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연합뉴스

“30년 노하우로 전남 해양플랜트 기업 발돋움하겠다”

비즈 & 피플 <9> 강귀중 (유)HD산업건설 대표

목포·무안 등 서남권 해양플랜트·기초 철 구조물 제작·설치 전문 신안 새천년대교·삼호중 공사 수행 “지역과 상생하며 성장할 것”



“30년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해양플랜트 기업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강귀중(사진) (유)HD산업건설 대표는 “최상의 수요자 만족도”라는 사훈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 대표의 HD산업건설은 목포와 무안, 신안 등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해양플랜트 및 기초 철 구조물을 제작·설치 전문업체로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HD산업건설은 지난 2015년 업계에 발을 내딛었다. 철골·강 구조물 관련 업계에서 20여 년 ‘현장파’를 먹던 강 대표가 창업한 회사다.

강 대표는 “업력 8년 뿐인 신생회사지만 밑바닥부터 시작해온 업계 경력으로 회사를 안정적인

규모에 올려놓았다”면서 “함께하는 직원들과도 십수년 인연을 이어오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강 대표는 해양플랜트와 철구조물 업계 베테랑으로 불린다. 그는 신안군 역점사업으로 꼽혔던 새천년대교 교각 기둥 기초공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했고, 또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해양플랜트 분야에서도, 인상적인 결과물을 선보였다. 특히 삼호중공업 내 돌핀암벽(대형선박의 부두 접안을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설치 공사를 수행했다.

그는 또 국가산단인 대불산단과 대양산단, 삼향농공단지 등 서남권 지방산업단지 내 입주 회사를 대상으로 철구조물을 다수 제작하는 등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술인이다.

강 대표의 노하우를 통해 HD산업건설은 목포와 신안, 무안, 등지에서 다양한 철구조물 공사를

여럿 수행할 수 있었다. 강 대표는 “구조물의 규모, 형상, 대지, 공정조건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 시공으로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HD산업건설은 강 대표가 쌓아온 경험과 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과거 공장을 임대해가며 세입자 생활을 전전하다 비로소 지난 2022년 6월 목포 대양산단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었다.

강 대표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관공서와 조선회사, 제조업공장 등 다양한 공사 경험을 인정받아 해마다 성장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골공사의 대형화, 고층화, 복잡화로 기술력을 갖춘 HD산업개발의 미래는 더욱 밝다라는 강 대표의 얘기다. 무엇보다 철골공사 특성상 고층 작업과 중량물 취급, 위험한 장비 사용으로 재해발생이 높은 만큼, 강 대표는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강 대표는 “HD산업건설은 지역사회의 상생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공헌에도 힘써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체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기 ESG 대응전략 설명회 광주상의, 15일 개최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오는 15일 지하 2강의실에서 ‘중소·중견기업 ESG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대신경제연구소와 함께 지역중소·중견 수출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중소·중견기업 ESG 대응전략 전국 순회 설명회’의 일환이다.

설명회는 상공회의소 공급망 ESG 지원센터 안내, ESG 경영과 지속가능 금융의 이해, 글로벌 제도 동향 설명 등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대한상의는 ESG 관련 이슈와 EU 공급망 실사법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영향과 현재 상공회의소 공급망 ESG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ESG 진단 및 컨설팅 사업 등을 소개한다.

이어 대신경제연구소는 글로벌 ESG 이슈와 사례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 Fit For 55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과 자동차·가전 협력 업체가 많은 광주시의 특성을 고려해 협력업체 공급망 실사 및 관련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지역 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상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도, 창업·벤처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나서

12개 기관 합동 설명회...투자자-기업 네트워크 연계 투자기회 제공

전남도는 지난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한국엔젠투자협회(호남권엔젠투자협회) 등 12개 기관과 함께 전남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창업·벤처기업)의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투자자와 기업 간 네트워크 연계 및 투자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대

학생 동아리 3개 팀, ㈜에스엔엘(수경재배 제어장치), ㈜로보팜코리아(농업용 로봇) 등 투자유치 희망 기업 9개 사 등 투자유치 희망 12개 팀과 한국엔젠투자협회, 디터엔인베스트먼트 등 15개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해 기업 설명회(IR) 및 1대1 투자상담회를 진행했다.

투자유치설명회에서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와 투자심사역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상·기술혁신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 또 참여기업이 투자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역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나기 쉽지 않았던 다수의 벤처캐피탈과 만남의 장을 제공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



지난 9일 열린 '2023 문화예술후원대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식'에서 효성 최형식(오른쪽) 커뮤니케이션실 상무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왼쪽)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효성 제공>

효성,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효성은 지난 9일 열린 '2023 문화예술후원대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식'에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효성은 2015년 최초 인증 이후 3년 간격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재인증 심사를 3회 통과했다.

따라서 효성은 2026년까지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다.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중 2015년 최초 인증 이후 올해까지 인증 연장된 곳은 효성을 포함해 총 6개 기업 뿐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평소 “지속적인 문화예술 후원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또 그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혀왔다.

효성은 문화예술후원 분야를 사회공헌 3대 테

마 중 하나로 삼고 다양한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로또복권 (제109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0	17	22	30	35	43	44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1,967,040,750	13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5,568,025	65
3	5개 숫자일치					1,455,575	2,928
4	4개 숫자일치					50,000	141,232
5	3개 숫자일치					5,000	2,327,509

광주신세계 김장 봉사활동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는 지난 10일 광주김치타운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에는 광주신세계는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광주김치 명인이 전문강사로 나서 이론교육부터 김장 시연까지 선보여 보다 전문적이고 좋은 원재료를 사용해 더욱 품질 좋은 완제품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올해 광주신세계 개점 28주년을 기념하고 지역소외계층의 월동준비를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직접 담근 김장김치 총 280박스(1400kg)는 정기후원 결연아동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후원하는 세대 등을 포함한 총 184세대에 전달됐다.

한편 신세계백화점 본사에서도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임직원 160여명이 직접 참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진행한다.

신세계 임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 김치는 신세



지난 10일 광주김치타운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동훈(앞줄 왼쪽 네번째) 광주신세계 대표와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계백화점 친환경 보양백에 담아 각 지역별 종합 사회복지와 아동시설에 기부돼 창립 60주년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동훈 대표는 “현직법인 광주신세계는 개점 28주년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마련했다”며 “임직원들이 사랑으로 바무런 김장김치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